

#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오혜경

춘해대학 간호과

## 〈목 차〉

I. 서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III. 연구결과  
IV. 고찰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21C는 지식이 기반된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써, 전 세계적 추세가 곧 우리 현실의 오늘이 되는 만큼 명실공히 지구촌은 하나이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화되고 동화되는 세대가 바로 젊은이, 즉 n세대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화된 정보에 의해 한 눈에 모든 것을 입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적절한 자아발달 및 자아 정체감의 확립에 다각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다원화는 젊은이들의 성문화의 개방화 및 성 인식의 변화

로 인한 범죄, 탈선행위 등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의 발달과 정립,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며, 윤리적인 행위인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이란 단순한 생물학적 실제일 뿐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실체로 인간의 문화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 이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성의 개념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Shorter, 1977).

우리 사회에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쳐 유입된 서구의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와 최근에 유입되기 시작한 성 개방의 각본들이 유교전통의 맥락 속에서 형성, 유지되고 있는 순결과 정절

교신저자: 오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산72-10번지 춘해대학 간호과  
전화번호: 052-270-0184, E-mail: nice614@choonhae.ac.kr

이데올로기와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형 성도덕은 사회 윤리와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성 윤리나 행동에 있어 남녀의 구별이 엄격하여 남성에 대한 기준과 여성에 대한 기준이 규범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위 성에 관한 이중적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성한기, 1996).

인간의 발달과정을 볼 때 여대생은 19세~22세 사이의 연령층인 청년후기 또는 성인 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가치를 명료화하고 야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때로 성숙, 친밀성 및 정체성의 발달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권미경외 2인, 1998). 특히 성적 성숙의 일차적 관문인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마지막 고비에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윤가현, 1990).

이처럼 성적 사회화 과정에 있는 여대생 집단은 개인들이나 소집단들이 성적 태도나 표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또 느끼는가에 따라 심오한 영향을 받으며(Adams, 1980) 더욱이 한국의 여대생들은 가부장적, 유교 문화 속에서 남·녀의 구별을 경험하고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성적 태도, 표현과 관련된 내적·외적 갈등은 성적 성숙의 과정과 인간 상호관계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요청되나 현재까지 여대생에 관한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인 성적 성숙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여대생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주로 대

학생의 성 지식, 태도, 행동, 정체성 등에 대한 연구 등(강병우 등, 1997; 구은숙, 1997; 권현주, 1998; 김신정, 1995; 성한기, 1996)이 이루어져 왔다.

여대생은 가임과 양육을 맡게 될 소중한 자원으로 가족의 건강 및 생활 영위를 하는데 근원이 되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은 건전한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므로 건강한 국가의 척도인 것이다. 특히, 가임기에 있는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은 여성 건강에 대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성교육의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여대생들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 태도 및 이들이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21세기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인 여대생이 올바른 성적 성숙 및 건강한 성 가치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여대생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성 지식은 영역별로 파악하여 지식 정도가 낮아 교육이 필요한 영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여대생의 성 태도는 영역별로 파악하여 개방적 및 폐쇄적 태도를 보인 영역을 성 가치관을 확립,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영역으로 제안하고 한다.

- 3) 여대생의 성 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원하는 성 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알고자 하는 성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성 교육의 중요 영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3. 용어 정의

#### 1) 성 지식

성 지식이란 개인이 성의 생물학적,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습득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박미숙, 2001). 본 연구에서는 생식 생리, 성병, 피임, 성 생리에 관한 지식을 뜻하며 총 25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의미한다.

#### 2) 성 태도

성 태도란 이성에 대한 안정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래의 경향이 정해지는 심적 경향으로 신체적 구조에 관한 느낌, 다양한 성 활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김남정, 2000). 본 연구에서는 혼전 임신의 책임, 결혼 전 유산, 결혼 후 유산, 남성의 혼전 성교, 여성의 혼전 성교, 남성의 혼외 성교,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며 총 7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의미한다.

#### 3) 성교육 요구

성 교육이란 성적 발달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성적 존재로서의 책임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 역할을 이해하며 이성 간에 평등, 존경, 협력 및 신뢰의 바탕 하에 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교육을 의

미하며(박미숙, 2001), 이러한 성교육과 관련된 요구의 정도를 성교육 요구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성 교육 필요여부, 성 교육 실시의 적합 시기 및 실시 방법에 관한 4개 문항과 남녀의 성 심리, 성 윤리, 생식 생리, 성 생리, 성병, 피임, 성 행동, 남녀의 역할, 사랑의 의미, 결혼의 의미, 이성교제의 방법, 배우자 선택에 관한 20개 문항에 대한 요구 빈도를 의미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에 위치한 C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46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나 판단이 일관성이 있고 명료한 자
- 2) 현재 정신병이나 규칙적인 약물의 복용이 없는 자
-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 2. 연구 도구

#### 1) 성 지식 측정도구

성 지식은 이인숙(1994)의 성 지식에 대한 도구를 기초로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생식생리에 대한 13개 문항, 성생리에 대한 5개 문항, 성병에 대한 5개 문항, 피임에 대한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옳은 진술에 대해 '그렇다'라고 한 경우는 정답으로 처리하여 1점, '아니다'와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여 0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Cronbach's  $\alpha=.85$ 이었다.

## 2) 성 태도 측정도구

성 태도는 이인숙(1994)의 성 태도에 대한 도구를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혼전 임신의 책임, 결혼 전 유산, 결혼 후 유산, 남성의 혼전 성교, 여성의 혼전 성교, 남성의 혼외 성교,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한 7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 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Cronbach's  $\alpha=.71$ 이었다.

## 3) 성 교육 요구 측정도구

성 교육 요구는 이인숙(1994)의 성교육 요구 측정도구를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 여부, 성교육 실시를 위한 적합한 시기와 방법에 관한 4문항 및 원하는 성 교육의 내용에 관한 20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였으며 재학 중인 여대생 총 496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을 한 32명의 질문지를 제외한 464명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각 학과의 담당 교수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

조를 구한 후 설문 실시 일자를 결정하였다. 선정한 각 학과별로 강의 시작 전이나 후에 학생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 4.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변수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 1)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 성 지식 및 태도, 성 교육 요구는 빈도, 백분율 및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 2)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및 성 태도는 t-test, ANOVA,  $\chi^2$  test로 분석하였으며 ANOVA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s test를 사용하였다.
- 3) 여대생의 성 태도와 성 지식간의 관계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s test를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263명(56.7%)으로 2학년 201명(43.3%)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187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127명(27.4%), 기독교 102명(22.0%), 천주교 43명(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교교의 소재지는 대도시인 경우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64)	
특 성	구 분	실 수	%
학 년	1학년	263	56.7
	2학년	201	43.3
종 교	기독교	102	22.0
	천주교	43	9.3
	불교	127	27.4
	무교	187	40.3
	기타	5	1.1
출신고교 소재지	대도시	346	74.5
	중,소도시	89	19.2
	농,어촌	29	6.3
부모생존 여부	양친생존	420	90.5
	편부	10	2.1
	편모	31	6.7
	양친 안 계심	3	0.6
어머니 학력	무학	1	0.2
	초졸	47	10.1
	중졸	94	20.3
	고졸	282	60.8
	대졸	35	7.5
	대학원졸	5	1.1
경제 상태	상	14	3.0
	중	385	83.0
	하	65	14.0
주거 형태	자택	411	88.6
	자취, 하숙	35	7.5
	친척집	5	1.1
	기숙사	13	2.8
성지식 습득경로	친구, 선배	221	47.6
	전문서적	42	9.1
	대중매체	138	29.7
	부모	12	2.6
	교사	43	9.3
	기타	8	1.7
최초 성지식 습득시기	초등학교	109	23.5
	중학교	207	44.6
	고등학교	119	25.6
	대학교	29	6.2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보통	208	44.8
	보수	214	46.1
	개방	42	9.1

346명(74.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중·소도시인 경우는 89명(19.2%), 농·어촌인 경우는 29명(6.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생존 여부는 양친 생존인 경우가 420명(9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편모인 경우가 31명(6.7%), 편부 10명(2.1%), 양친 모두 안 계신 경우가 3명(0.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282명(60.8%)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94명(20.3%), 초등졸 47명(10.1%), 대졸 35명(7.5%), 대학원졸 5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385명(83.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거형태는 자택인 경우가 411명(88.6%)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및 하숙인 경우가 35명(7.5%), 기숙사 13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지식 습득 경로는 친구 및 선배라고 응답한 경우가 221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매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8명(29.7%), 교사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3명(9.3%), 전문서적 42명(9.1%), 부모 12명(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초의 성 지식 습득 시기는 중학교가 207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119명(25.6%), 초등학교가 109명(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는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4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08명(44.8%), 개방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2명(9.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연구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 교육 요구

### 1) 연구 대상자의 성 지식

대상자의 성 지식에 대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성 지식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25점까

<표 2-1> 대상자의 성 지식

영역	문항 수	평점		
생식생리	13	0.82		
성생리	5	0.79		
성병	5	0.76		
피임	2	0.54		

  

영역	문항	오답 실수(%)	정답 실수(%)	평균 ±표준편차
성생리	1. 자위행위는 건전한 운동을 통해 줄일 수 있다	115(24.8)	349(75.2)	0.75±0.43
	9.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다 성충동이 강하다	88(19.0)	376(81.0)	0.81±0.39
	23. 몽정은 허약한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33( 7.1)	431(92.9)	0.93±0.25
	24. 몽정은 신체적으로 매우 해롭다	40( 8.6)	424(91.4)	0.92±0.27
	25. 콘돔을 사용하면 조루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	221(47.6)	243(52.4)	0.53±0.50
성병	2. 자위 시 더러운 손으로 성시를 만지는 것은 세균의 침입을 가져올 수 있다	13( 2.8)	451(97.2)	0.97±0.16
	4. 임산부가 매독에 걸리면 태아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13( 2.8)	451(97.2)	0.97±0.15
	5. 임질에 감염된 첫 증상으로 남성의 경우 요도에 통증을 느낀다	203(43.7)	261(56.3)	0.57±0.49
	16. 매독균은 인체 밖에서도 생존가능하다	253(54.4)	211(45.5)	0.46±0.49
	17. 성병이 있는 경우 임신이 안 된다	60(12.9)	404(87.1)	0.87±0.33
피임	6. 복강경 수술은 여성이 하는 피임술이다	300(64.7)	164(35.3)	0.34±0.47
	12. 먹는 피임약은 난소에서 배란이 되지 않게 하여 임신을 예방하는 약이다	118(25.4)	346(74.6)	0.74±0.43
생식생리	3. 임신이 가능한 시기는 월경전 11~18일 경이다	109(23.5)	355(76.5)	0.76±0.42
	7. 월경혈은 질을 통하여 나온다	22( 4.7)	442(95.3)	0.96±0.20
	8. 여성은 최초의 성교에서 출혈이 없을 수 있다	49(10.6)	415(89.4)	0.90±0.30
	10.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	16(3.4)	448(96.6)	0.97±0.18
	11. 난자는 1달에 1개씩 생성된다	69(14.9)	395(85.1)	0.85±0.35
	13. 폐경기 이후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32( 6.9)	432(93.1)	0.93±0.25
	14. 음경이 자극되어 커지는 것을 사정이라 한다	99(21.3)	365(78.7)	0.79±0.40
	15. 임신기간 동안 태아는 난소에서 자란다	33(7.1)	431(92.9)	0.93±0.25
	18. 월경기간 중에 성교를 하면 임신이 안된다	137(29.5)	327(70.5)	0.70±0.45
	19. 분만시 아기는 엄마의 요도를 통해서 나온다	34( 7.3)	430(92.7)	0.93±0.25
	20. 정자와 난자는 자궁에서 수정된다	146(31.5)	318(68.5)	0.68±0.46
	21. 정자는 1회 사정시 1개가 배출된다	12( 2.6)	452(97.4)	0.97±0.15
22. 정액의 90%이상이 정자로 되어 있다	270(58.2)	194(41.8)	0.42±0.49	

지로 평균 점수는 19.60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성 지식의 점수는 생식 생리에 대한 점수가 0.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임에 대한 지식이 0.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 지식에 관한 문항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정자는 1회 사정 시 1개가 배출된다'로서 97.4%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임신부가 매독에 걸리면 태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자위 시 더러운 손으로 성기를 마지는 것은 세균의 침입을 가져올 수 있다'로 97.2%가 정답에 응답하였다.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몽정, 위생, 임신, 폐경, 성 충동에 관한 문항이었다. 반면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은 '복강경 수술은 여성이 하는 피임술이다'로 35.3%만이 정답에 옳하였고 그 다음으로 41.8%만이 정답에 옳한 문항은 '정

액의 90%이상이 정자로 되어 있다'로 나타났다.

2) 연구 대상자의 성 태도

대상자의 성 태도에 대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성 태도에 관한 문항 중 '결혼 전 유산'에 대한 문항에 대해 48.0%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결혼 후 유산'에 대해 23.3%, '여성의 결혼 전 성교'에 대해 22.6%의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들은 여성의 결혼 전 유산 및 결혼 후 유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여성의 혼외 성교 및 남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성 교육 요구

대상자의 성 교육 요구에 대한 결과는 <표 2-3-1>과 같다. 대학에서 성 교육이 필요하다

<표 2-2> 대상자의 성 태도

문 항						(N=464)
	매우찬성	찬성	보통 실 수 (%)	반대	매우반대	평균 ±표준편차
1. 이성교제 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7(1.5)	50(10.8)	147(31.7)	225(48.5)	35(7.5)	3.51±0.84
2. 결혼 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	21(4.5)	202(43.5)	107(23.1)	107(23.1)	27(5.8)	2.82±1.02
3. 결혼 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을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	4(0.9)	104(22.4)	111(23.9)	181(39.0)	64(13.8)	3.42±1.01
4. 남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3(0.6)	93(20.0)	151(32.5)	138(29.7)	79(17.0)	3.45±1.01
5. 여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8(1.7)	97(20.9)	157(33.8)	133(28.7)	69(14.9)	3.43±1.01
6. 남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0(0.0)	21(4.5)	78(16.8)	199(42.9)	166(35.8)	4.10±0.83
7. 여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0(0.0)	20(4.3)	80(17.2)	198(42.7)	166(35.8)	4.10±0.83

<표 2-3-1> 대상자의 성 교육 요구

(N=464)

영역	구분	실수(%)
성 교육의 필요여부	예	423(91.2)
	아니오	41( 8.8)
성 교육의 방법	정규 학과목	131(28.2)
	특강	267(57.5)
	상담실/교내 보건소를 통한 상담	64(13.9)
	기타	2( 0.4)
성 교육의 시행방식	남녀혼합	407(87.6)
	남녀분리	57(12.4)
성 교육의 시행시기	대학 1학년	405(87.3)
	대학 2학년	34( 7.3)
	대학 3학년	25( 5.4)

고 응답한 경우는 423명(91.2%)으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 교육의 방법으로는 특강이 267명(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규 학과목이 131명(28.2%), 상담실이나 학교 보건소에서의 상담이 64명(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교육 방법에서 남녀 혼합하는 방법이 407명(87.6%)으로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성 교육의 실시 시기는 1학년 때가 405명(87.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결과는 <표 2-3-2>와 같다. 성 교육 내용 중 '남녀의 성 심리'가 419명(99.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피임'이 404명(95.5%), '성 병', '성 행동', '성 생리', '생식 생리', '성 윤리', '사랑의 의미', '이성교제의 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2> 대상자가 원하는 성 교육 내용

(N=423)

영역	구분	실수 (%)
남녀의 성 심리		419(99.1)
피 임		404(95.5)
성 병	성 병	394(93.1)
	동성애	334(79.0)
성 행동	성범죄의 예방	385(91.0)
	성 교	380(89.8)
성 생리	성욕의 처리방법	382(90.3)
	자위행위	357(84.4)
	몽 정	333(78.7)
생식 생리	남녀의 생식기관	380(89.8)
	임 신	377(89.1)
	사 정	357(84.4)
	분 만 월 경	321(75.9)
성 윤리		379(89.6)
사랑의 의미		342(80.9)
이성교제의 방법		339(80.1)
남녀의 역할		324(76.6)
결혼의 의미		312(73.8)
배우자 선택		297(70.2)



###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및 성 태도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에 대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출신고교 소재지, 경제상태, 최초의 성 지식 습득 시기에 따라 성 지식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1학년보다 2학년이 성 지식의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았

으며 특히 성병에 대한 지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 출신고교 소재지는 성 생리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3). 출신고교가 대도시보다 농·어촌일수록 성 생리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가 중, 하인 경우가 상인 경우보다 생식 생리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최초의 성 지식 습득 시기는 습득 시기의 학년이 높을수록 영역별 성 지식 중 피임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2).

<표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N=464)

특성	구분	생식 생리			성 생리			성 병			피 임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학년	1학년	10.64 (1.75)	-1.98	.04	3.86 (1.03)	-2.25	.02	3.71 (0.92)	-3.58	.00	1.02 (0.68)	-2.04	.04
	2학년	10.97 (1.74)			4.07 (0.92)			4.02 (0.85)			1.15 (0.64)		
출신 고교 소재지	대도시	10.89 (1.72)	1.49	.22	3.97 (0.86)	3.41	.03	3.86 (0.87)	0.14	.86	1.07 (0.65)	0.69	.50
	중,소도시	10.55 (1.76)			3.78* (1.08)			3.80 (1.00)			1.15 (0.66)		
	농,어촌	10.59 (1.80)			4.32* (0.72)			3.85 (0.84)			1.00 (0.75)		
경제 상태	상	8.83*# (2.92)	3.99	.01	3.57 (1.13)	0.60	.54	3.42 (1.51)	0.89	.41	1.16 (0.40)	0.42	.65
	중	10.83* (1.71)			3.95 (0.99)			3.84 (0.88)			1.09 (0.67)		
	하	10.84# (1.64)			4.00 (0.87)			3.90 (0.93)			1.01 (0.67)		
최초 성 지식 습득 시기	초등학교	10.90 (1.80)	1.16	.32	3.95 (0.97)	1.17	.32	3.85 (0.88)	0.28	.83	0.92* (0.68)	3.29	.02
	중학교	10.89 (1.54)			4.02 (0.88)			3.82 (0.90)			1.05 (0.65)		
	고등학교	10.54 (2.10)			3.80 (1.11)			3.79 (1.00)			1.20* (0.63)		
	대학교	11.11 (1.67)			4.00 (1.02)			4.00 (0.68)			1.21 (0.71)		

\*, # ; Bonferroni's test 결과 \*\*\*, #-#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에 대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 태도와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년, 종교, 출신 고교 소재지,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학년에는 1

학년이 결혼 전 유산에 대해 2학년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p=.00) 결혼 후 유산에 대해서는 2학년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p=.04) 남성과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서는 2학년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01; p=.00). 종교에서는 혼전 임신의 책임(남성, 결

<표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

		혼전 임신 책임			결혼 전 유산			결혼 후 유산			남성 혼전 성교			여성 혼전 성교			남성 혼외 성교			여성 혼외 성교		
특성	구분	찬성	보통	반대	찬성	보통	반대	찬성	보통	반대	찬성	보통	반대	찬성	보통	반대	찬성	보통	반대	찬성	보통	반대
실수 (%)																						
학 년	1학년	148 (57.1)	81 (30.9)	33 (12.6)	122 (46.6)	50 (19.1)	90 (34.4)	53 (20.2)	58 (22.1)	151 (57.6)	51 (19.5)	83 (31.7)	128 (48.9)	53 (20.4)	86 (33.1)	121 (46.5)	7 (2.7)	36 (13.7)	219 (83.6)	6 (2.3)	37 (14.1)	219 (83.6)
	2학년	111 (42.9)	66 (32.8)	24 (11.9)	101 (50.2)	57 (28.4)	43 (21.4)	55 (27.4)	53 (26.4)	93 (46.3)	45 (22.4)	68 (33.8)	88 (43.8)	49 (24.4)	71 (35.3)	81 (40.3)	13 (6.5)	42 (21.0)	145 (72.5)	14 (7.0)	42 (21.0)	144 (72.0)
	$\chi^2$ df(p)	0.20 (0.90)			11.20 (0.00)			6.11 (0.04)			1.25 (0.53)			1.99 (0.36)			9.15 (0.01)			10.88 (0.00)		
종 교	기독교	52 (54.7)	25 (26.3)	18 (18.9)	38 (40.0)	17 (17.9)	40 (42.1)	20 (21.1)	15 (15.8)	60 (63.2)	15 (15.8)	29 (30.5)	51 (53.7)	15 (15.8)	28 (29.5)	52 (54.7)	4 (4.2)	18 (18.9)	73 (76.8)	4 (4.2)	17 (17.9)	74 (77.9)
	천주교	19 (44.2)	20 (46.5)	4 (9.3)	18 (41.9)	5 (11.6)	20 (46.5)	6 (14.0)	8 (18.6)	29 (67.4)	6 (14.0)	15 (34.9)	22 (51.2)	5 (11.6)	18 (41.9)	20 (46.5)	1 (2.3)	3 (7.0)	39 (90.7)	1 (2.3)	3 (7.0)	39 (90.7)
	불교	74 (58.3)	35 (27.6)	18 (14.2)	60 (47.2)	37 (29.1)	30 (6)	23 (23.6)	35 (27.6)	62 (48.8)	24 (18.9)	43 (33.9)	60 (47.2)	27 (21.6)	45 (36.0)	53 (42.4)	4 (3.2)	19 (15.1)	108 (81.7)	5 (4.0)	20 (15.9)	101 (80.2)
	무교	110 (58.8)	63 (33.7)	14 (7.5)	102 (54.5)	46 (24.6)	39 (20.9)	52 (27.8)	51 (27.3)	84 (44.9)	49 (26.2)	62 (33.2)	76 (40.6)	53 (28.3)	64 (34.2)	70 (37.4)	11 (5.9)	38 (20.3)	138 (73.8)	10 (5.3)	39 (20.9)	138 (73.8)
	기타	3 (60.0)	0 (0.0)	2 (40.0)	3 (60.0)	1 (20.0)	1 (20.0)	0 (0.0)	2 (40.0)	3 (60.0)	0 (0.0)	1 (20.0)	4 (80.0)	0 (0.0)	2 (40.0)	3 (60.0)	0 (0.0)	0 (0.0)	5 (100)	0 (0.0)	0 (0.0)	5 (100)
$\chi^2$ df(p)	18.64 (0.01)			25.26 (0.00)			16.03 (0.04)			10.41 (0.23)			14.58 (0.06)			89.12 8 (0.350)			78.14 8 (0.452)			
출 신 고 교 소 재 지	대도시	190 (56.2)	105 (31.1)	43 (12.7)	167 (49.4)	75 (22.2)	96 (28.4)	90 (26.6)	73 (21.6)	175 (51.8)	68 (20.1)	108 (32.0)	162 (47.9)	74 (22.0)	112 (33.3)	150 (44.6)	14 (4.2)	56 (16.6)	267 (79.2)	14 (4.2)	58 (17.2)	265 (78.6)
	중, 소도시	50 (56.8)	31 (35.2)	7 (8.0)	43 (48.9)	23 (26.1)	22 (25.0)	16 (18.2)	29 (33.0)	43 (48.9)	18 (20.5)	32 (36.4)	38 (43.2)	19 (21.6)	35 (39.8)	34 (38.6)	4 (4.5)	16 (18.2)	68 (77.3)	4 (4.5)	17 (19.3)	67 (76.1)
	농·어촌	17 (58.6)	6 (20.7)	6 (20.7)	9 (31.0)	8 (27.6)	12 (41.4)	2 (6.9)	8 (27.6)	19 (65.5)	7 (24.1)	9 (31.0)	13 (44.8)	6 (20.7)	9 (31.0)	14 (48.3)	2 (6.9)	6 (20.7)	21 (72.4)	2 (6.9)	4 (13.8)	23 (79.3)
$\chi^2$ df(p)	4.57 (0.33)			4.65 (0.32)			10.85 (0.02)			1.016 (0.90)			1.69 (0.79)			0.958 4 (0.916)			0.931 4 (0.920)			
경 제 상 태	상	4 (57.1)	2 (28.6)	1 (14.3)	2 (28.6)	2 (28.6)	3 (42.9)	1 (14.3)	3 (42.9)	3 (42.9)	1 (14.3)	4 (57.1)	2 (28.6)	1 (14.3)	4 (57.1)	2 (28.6)	0 (0.0)	3 (42.9)	4 (57.1)	0 (0.0)	3 (42.9)	4 (57.1)
	중	221 (57.6)	119 (31.0)	44 (11.5)	190 (49.5)	89 (23.2)	105 (27.3)	91 (23.7)	92 (24.0)	201 (52.3)	75 (19.5)	123 (32.0)	186 (48.4)	79 (20.7)	130 (34.0)	173 (45.3)	15 (3.9)	57 (14.9)	311 (81.2)	15 (3.9)	59 (15.4)	309 (80.7)
	하	33 (50.8)	21 (32.3)	11 (16.9)	28 (43.1)	15 (23.1)	22 (33.8)	16 (24.6)	15 (23.1)	34 (52.3)	18 (27.7)	23 (35.4)	24 (36.9)	20 (30.8)	23 (35.4)	22 (33.8)	5 (7.7)	18 (27.7)	42 (64.6)	5 (7.7)	17 (26.2)	43 (66.2)
$\chi^2$ df(p)	1.87 (0.75)			2.46 (0.65)			1.45 (0.83)			5.41 (0.24)			5.87(0.20)			12.54 (0.01)			10.37 (0.03)			

혼 전 유산, 결혼 후 유산에서 무교인 경우가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01; p=.00; p=.04). 출신교 소재지가 대도시인 경우에 결혼 후 유산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02),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가 남성과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다른 경우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p=.01; p=.03).

#### 4. 연구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

연구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가 생식 생리, 성병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임신의 책임 소재(남

<표 4> 대상자의 성 태도에 따른 성지식 점수의 차이

(N=464)

문항	구분	생식 생리	성 생리	성 병	피 임
혼전 임신의 책임(남성)	찬성	10.90	3.99	3.94*	1.06
	보통	10.68	3.83	3.69*	1.11
	반대	10.54	4.05	3.82	1.07
	F(p)	1.29(0.27)	1.56(0.21)	3.38(0.03)	0.19(0.82)
결혼 전 유산	찬성	10.86	3.99	3.77	1.02
	보통	10.80	3.93	3.97	1.13
	반대	10.64	3.90	3.87	1.13
	F(p)	0.64(0.52)	0.35(0.70)	1.71(0.18)	1.36(0.25)
결혼 후 유산	찬성	11.12*	4.04	3.97*	1.00
	보통	10.48*	3.86	3.65*	1.08
	반대	10.77	3.95	3.88	1.11
	F(p)	3.56(0.02)	0.93(0.39)	3.77(0.02)	0.85(0.42)
남성의 혼전성교	찬성	11.02	4.15	3.87	1.06
	보통	10.83	3.93	3.86	1.06
	반대	10.64	3.86	3.82	1.09
	F(p)	1.55(0.21)	2.84(0.05)	0.09(0.90)	0.12(0.87)
여성의 혼전성교	찬성	10.93	4.10	3.90	1.04
	보통	10.92	3.99	3.84	1.11
	반대	10.59	3.83	3.82	1.07
	F(p)	1.97(0.13)	2.83(0.06)	0.24(0.78)	0.33(0.71)
남성의 혼외성교	찬성	11.00	4.05	3.95	1.25
	보통	10.44	4.02	4.00	1.05
	반대	10.85	3.93	3.81	1.07
	F(p)	1.79(0.16)	0.37(0.68)	1.47(0.23)	0.71(0.49)
여성의 혼외성교	찬성	11.00	4.00	3.95	1.20
	보통	10.53	4.03	3.98	1.10
	반대	10.78	3.93	3.81	1.07
	F(p)	1.06(0.34)	0.38(0.68)	1.27(0.28)	0.39(0.67)

\* ; Bonferroni's test 결과 \*\*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성)에 대해 찬성하는 대상자가 성병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3$ ), 결혼 후 유산에 대해 찬성하는 대상자가 생식 생리, 성병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2$ ;  $p=.02$ ).

#### IV. 고 찰

여대생들의 성 지식 습득경로는 친구 및 선배인 경우가 47.6%, 대중매체인 경우가 29.7%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기관 및 부모를 통한 성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신정, 1995; 류진혜 등, 1995; 박미숙, 2001; 성한기, 1996; 오세금, 2001). 이는 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나 건강한 성 정체성을 완성, 유지해 가는 시기의 여대생들이 성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지식을 최초로 습득한 시기는 중학교인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대생 4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신정(1995)의 연구 및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오세금(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학교라는 시기는 신체, 생리적 성숙의 시작과 함께 정서적으로 불균형을 경험하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가게 된다. 이러한 발달 단계상의 특성으로 인해 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사려된다.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는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1%, 보통이다가 44.8%로 개방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1%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서울 지역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세금(2001)의 연구, 서울 시내 1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도 성에 대해 부모가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존재하나 세대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좁히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녀만이 아닌 부모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대상자의 성 지식 정도는 생식 생리 및 성 생리에 관한 지식 정도가 가장 높으며 피임에 대한 지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오세금, 2001; 이영휘 등, 1997; 이인숙, 1994; 이인숙 등, 2000) 피임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대생들의 성문제가 과거의 이성교제, 자위 행위 등에 관한 내용에서 성폭행이나 임신 가능성, 이성과의 신체적 관계에 따른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김신정, 1995)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생식생리에 관한 지식을 위주로 한 성 교육이 아닌 피임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까지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성 태도에서 결혼 전 유산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대구시내 여대생 4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신정(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서울시내 남녀 대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인숙(1994)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 녀 대학생 모두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

은 여성 및 남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각각 43.6%, 46.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0% 이상의 결과가 나온 선행 연구결과들과(구은숙, 1997; 김신정, 1995; 성한기, 1996; 이인숙, 1994)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대생의 성에 대한 인식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연구한 오혜경(2001)의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육체적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혼전 성교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이 점차 개방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교육에 대한 요구에서 대상자들의 91.2%가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80.0% 이상의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대상자들의 원하는 성 교육의 내용으로는 남녀의 성 심리, 피임, 성병, 성행동, 성 생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성 교육 내용은 남녀 성 심리, 피임, 성병, 성 윤리, 임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녀 대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영휘 등(1997)의 연구에서는 피임, 임신, 성병, 생리 기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Robert & Kathryn(1991)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임신과 피임을, 남학생은 성기의 해부, 생리 및 성병에 관하여 가장 알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세금(2001)의 연구에서는 피임 및 유산, 임신과 출산, 성폭력, 성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여대생의 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오혜경(2001)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단순한

남녀의 해부학적 구조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현재의 성교육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성 교육 내용은 과거 생식기 중심의 해부학적 지식만이 아닌 피임, 임신, 성 행동, 성 심리 등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학생이라는 시기가 성 경험의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체 등을 통해 성에 대한 개방적인 문화 형성으로 인한 성에 대한 급격한 인식의 변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피임, 성병 등은 지식 정도도 낮았던 문항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남녀 성 심리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은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성에 대한 이성의 심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 유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려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여대생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주로 친구, 선배, 대중매체 등을 통해 습득하므로 인해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들의 성 지식 중 특히 피임에 대한 지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성 교육 내용도 남녀의 성심리, 피임, 성병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피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혼전 성교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이 점차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랑과 성, 결혼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인식해왔던 전통적인 성의식은 더이상 지배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의 개념, 유산의 의미, 남녀의 성 심리 및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성에 대한 이들의 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들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여대생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로,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46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이인숙(1994)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 교육 요구도에 관한 도구를 기초로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 지식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25점까지로 평균 점수는 19.60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성 지식의 점수는 생식 생리에 대한 점수가 0.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임에 대한 점수가 0.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성 태도는 '결혼 전 유산'에 대한 문항에 대해 48%가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서는 4.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학에서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23명(91.2%)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이 원하는 성 교육의 내용으로는 '남녀의 성 심리'가 419명(99.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피임'이 404명(95.5%), '성병',

'성 행동', '성 생리', '생식 생리', '성 윤리', '사랑의 의미', '이성교제의 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성 교육은 성 경험의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성에 대한 지식 정도는 낮으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남녀의 성 심리, 피임, 성병, 성 행동 등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여대생들은 혼전 성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규제보다는 그들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성의 개념, 유산의 의미,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따라서 성 교육은 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간의 협조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인 여대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성 정체성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집수일자: 4월 7일, 게재확정일자: 5월 31일>

## 참고문헌

- 강병우의 9명. 광주보건대학생의 성 의식에 대한 고찰.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1997;22:187-215.
- 구은숙. 대학생의 성 의식 조사 연구.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997;19:49-63.
- 권현숙. 대학생들의 성 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남정. 컴퓨터 성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성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신정. 대구시내 일부 여대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95;60(4):345-353.
- 류진혜, 강재연, 김재환. 대학생의 성(性)에 대한 실태 조사.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1995; 13:17-27.
- 문지원. 대학생 성교육을 위한 성 지식 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미숙.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 비교분석.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성한기. 대학생들의 성(性)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1996;52:207-229.
- 오세금. 대학생의 성 지식 수준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오혜경. 한국 여대생의 성 인식에 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영희의 6명.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7;27(1):26-35.
- 이인숙.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인숙, 전미양, 김영희, 정미숙.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0;14(2):382-395.
- Adams, J.. Understanding adolescence. Boston: Ally & Bacon, 1980.
- Robert, F.V.M. & Kathryn, A.W..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nonymous questions about human sexuality. JACH 1991;39(5): 263-268.
- Shorter, E.. Making the must of marriage. NewYork: Basic Books, 1997.

<ABSTRACT>

##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 and Needs for Education on Sex of Korea Female Students in College

Hye Kyung Oh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sex and the needs for sex education of Korea female students in colleg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illed-out by 464 female students from September 2002 to December 2002.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ubjects' scores of sex knowledge was 19.60 on average divided into the lowest 1 to the highest 25. Reproductive physiology scored highest at 0.82 and the contraceptive method was the lowest at 0.54.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sex attitude as 48% were for the abortions before marriage, a they appeared the most negative as 4.3% were for extramarital coitus of women.

The subjects who responded that sexual education is necessary were 423 (91.2%), and they wanted 'the sexual mentality of men and women' most, 419 (99.1%). Also, 'contraceptive method' of 404 (95.5%), 'venereal disease.', 'sexual behavior', 'sexual physiology', 'reproductive physiology', 'sexual morals' etc followed.

Based on above results of the study, it is more essential to organize the sex education programs centering around 'contraceptive method', 'venereal disease.', 'sexual behavior' etc which are not too difficult but more needed than 'reproductive physiology'. It is required to develop sex education programs through research between specialists in various fields rather than through specialists in one field. It is considered that sex education programs can lead female students to forming and maintaining a correct sexual identity.

**Key words:** Sex, Knowledge, Attitude, Sex education, Female student, Sexuality